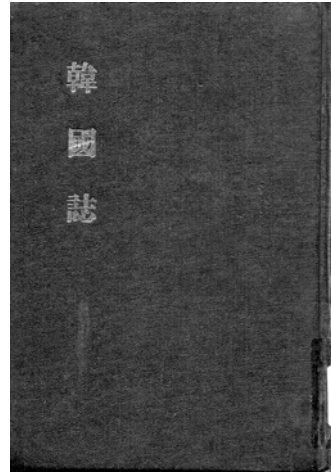


## 9 韓國誌 한국지

1978년 / 商務省 山林局(상무성 산림국) / 636면 / 14,10-08 농 1907

『**韓**國誌』는 러시아 재무부가 그들의 전통적인 동진정책(東進政策)에 따라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편찬한 것이다. 일제는 1905년 상무성 삼림국(商務省 山林局)에서 이를 초역(抄譯) 간행하기도 했다.



그런데 러시아판은 국내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일어판도 희귀한 상태였으므로 1978년 12월 동국대학교에서 일어판을 영인(影印) 출판하게 된 것이다.

이 책은 1876~1899년까지의 불과 23년 간의 기록으로 농업, 수산, 상업, 광업 및 제조업을 비롯한 운수교통 현황과 건국연혁, 풍토, 민속, 교육, 종교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기록하고 있다. 특히 도로에 관해서는 45면을 할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록이 대단히 상세하면서도 정확하다.

도로에 관한 우리나라의 기록은 도로 노선과 역(驛)에 관한 것들인데 『韓國誌』에서는 도로의 상태, 즉 노폭은 얼마나 되며, 교량은 어떻게, 또한 도로의 관리 상태는 어떤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 한말(韓末), 즉 근대화 이전의 도로 상태를 엿볼 수



있다.

이 책은 도로에 관한 한 지구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라고 전제한 다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서로(西路) 한양~의주 간의 이른바 사신로(使臣路)와 국방도로라 할 수 있는 관북로(關北路) 한양~경흥 간과 과거(科擧)길로 알려진 영남로(嶺南路), 즉 한양~동래 간의 도로 하나하나에 대한 답사결과를 기록하고 있다.

한양~의주 간의 서로(西路)는 노폭(路幅)이 3m 정도다. 이는 사신들이 말등에 짐을 싣고 옆에 마부(馬夫)가 나란히 걸어가는 데 지장이 없는 폭이다. 그런데 조선의 도로는 노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천을 건너고 나면 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 여행할 때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밝은 안내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.